

투데이 칼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북한이 한반도 정세 긴장의 핵심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다. 김여정은 "공해상에서 북한 전략 무기 시험을 요격할 경우 선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대외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5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본격화하고, 북한은 도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직후 여러 발의 신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했다.

이에 앞서 로켓엔진 개발 성공 사실을 공개하며 우주개발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행 고체연료 ICBM 발사나 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훈련도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점시로 전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각종 전략자산들을 계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나섰다. 한미 연합

합 사전연습은 무엇보다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 포착과 상황 분석,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한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연합훈련 방향이 바뀐 것이다.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도 펼쳤고, 미국의 장거리 핵 폭격기 B-52H가 서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전 항공기와 무인공격기에 이어 전략폭격기 B-1B와 B-52H까지, 미 공군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훈련을 한 번씩 치른 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와 합동 비행 정찰기들도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하면 핵 함모와 갑승 상륙함, 핵 잠수함 등 미 해군의 전략자산들도 대거 동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도 있는 미국 주도의

핵 역지력 협의체가 발족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에 주는 득과 실은 무엇인가이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정부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전과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은커녕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강화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최대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 8척이나 있고, 8개의 군 정찰위성도 보유하고

있다.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다. 유사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미국, 일본과 사실상 3각 동맹을 이룰 경우,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 협의체, 워드의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공개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기대조차 쉽지 않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한미일 연합전력에 상대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북한의 국방상이 중국과의 어떤 안보협력 가능성을 비친 바가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해나오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설

백세시대 가로막는 노인 질환

백세 시대를 가로막는 노인성 질환이 많다. 특히 허리와 관련된 질환은 다양하다. 요추가 틀어져서 나타나는 척추전방전위증, 노화로 인한 퇴행성 척추변형, 대표적인 허리 질환인 허리디스크, 허리 골절 등이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아픈 것이 다른 허리 질환과 같다. 그러나 디스크 질환과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척추관협착증의 '척추관'은 척추를 중심으로 일자로 뻗어있는 파이프 구조를 말한다.

이 공간이 좁아지며 척추관이 협착되면 통증이 발생한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척추관협착증과 디스크는 모두 척추를 따라 머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이 자극되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덜 느껴진다. 걸을 때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고 시리기도 하며 심한 경우 다리를 절며 걸

는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된다.

잘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허리디스크인지 척추관협착증인지 자가 진단으로 질환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허리디스크는 쉽게 올리지 못한다.

허리가 심하게 빠근하고 다리가 저린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올릴 때 불편함 없이 60°까지 올릴 수 있다. 둘째 걸을 걷는다. 척추관협착증은 걸을 때 불편하다. 셋째 둔부에 통증이 나타나지는지 확인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엉덩이까지 저리고 뻣뻣한 느낌이 든다. 걸거나 달릴 때 둔부가 아프고 저리다면 척추관협착증에 가깝다. 그러나 MRI, CT, X-RAY 등 정밀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백세시대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백세시대 첫 번째 구호는 단연 '건강백세'이다.

휠체어 가로 막는 높은 턱

전주시내 주요 도로에 휠체어를 가로 막는 높은 턱이 수두룩하여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전북대학교 구정문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조성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움 없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턱이 높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대 등 곳곳이 마찬가지다. 인도 곳곳이 울퉁불퉁하여 사고 위험이 크다. 턱이 높아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도 크다. 제대로 된 점자 블록 하나 없어 시각장애인은 더욱 위험하다.

이곳은 전주시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조성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동권)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휠체어는 도움 없이 지나가니 못할 정도로 모든 곳의 턱이 너무 높다.

턱과 인도 중간 중간에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인도 곳곳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은 거의 볼

수 없다. 미관에만 신경 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높은 턱과 고르지 못한 인도가 오호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시내에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장애인들은 심지어 안전한 도로를 포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면이 매끈한 차도로 많이 다니는 것이다.

인도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들이 넘나들 수 있도록 턱 높이를 2cm 이하로 해야 한다. 한편 전주시 당국은 배수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턱 높이를 마음대로 낮출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전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젤렌스키, 멕시코 의회 화상 연설로 지원 호소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화상을 통해 멕시코 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멕시코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불간섭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도적 처원의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이드 알 피트르 무료 풍선에 너도나도 동심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의 알-세덕 사원에서 이드 알 피트르 기도회를 마친 무슬림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풍선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성월 '리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 피트르'를 맞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